

문화예술활동 서울의 5% 불과...갈길 먼 문화수도 광주

문화예술위원회 발표 '2014 문화지수' 광주 7위·전남 10위

광주문예회관 공연·전시 건수 전국 10대 기관에 포함 전남, 국악·연극 강세...순천문화회관 109건 가장 활발

'문화수도' 광주의 예술활동 지수가 전국 17개 도시 가운데 7위, 전남은 10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5대 광역시 중 3위에 머물렀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공연·전시 가장 활발하게 열린 전국 10개 시설에 포함됐다.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시각 예술·국악·양악·연극·무용 등 6개 예술 분야의 지수를 각각 100으로 잡고 문화활동이 집중된 서울(6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예술활동 지수(Art Index)를 '2014 문예연감'에 발표했다.

광주는 6개 부문 종합지수는 47.1로 경기(149.2), 부산(106.4), 대구(63.7), 경남(60.4), 전북(52.7)에 이어 7위, 전남은 36.7로 10위에 머물렀다.

예술활동 지수는 지난 한 해 6개 예술 분야 각각에 대한 출간과 공연, 전시회 등 횟수를 집계해 서울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비율을 구한 것으로 서울과의 문화격차를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전체 예술활동의 지역별 편중을 수치화해 집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별 분야로도 서울은 총 1만9846건의 문화예술 활동 건수를 기록했으며, 2위인 경기도 4459건, 부산과 대구가 각각 2162건, 1486건 순이었다. 광주는 983건으로 7위, 전남은 12위를 기록했다.

공연과 전시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10

개 시설로는 서울 예술의전당이 13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문화회관(462건), 금호아트홀(443건), 부산문화회관(40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52건을 기록한 광주 문화예술회관은 9위에 포함됐다.

◇광주=광주의 문학부문 지수값은 1.0에 그쳤고 국악과 연극을 제외한 다른 값들도 모두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 연극은 분야 지수값 가운데 가장 높은 16.2를 차지했고, 국악이 10.4로 뒤를 이었다. 그만큼 공연이 활발했다는 방증이다.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전체 983건으로, 이 가운데 문학이 61건으로 6.2%를 차지했고, 시각예술이 28.4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국악과 양악, 연극은 타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예술 활동이 펼쳐진 공간은 광주문화예술회관으로 국악과 무용, 양악, 연극 등에서 총 252건의 공연이 열렸다. 유스퀘어문화관이 141건, 빛고을 시민문화관 106건, 유스퀘어문화관근교 갤러리 47건, 조선대학교미술관 40건, 5·18기념문화센터 35건, 은암미술관 25건, 광산문화예술회관 22건, 신세계갤러리광주점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각각 1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전남의 예술활동지수 합계 값은 36.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014년도 지역·분야별 예술활동지수 순위

자료=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분	문학	시각예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계
서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00.0
경기	22.7	18.5	22.8	23.0	47.4	14.8	149.2
부산	2.2	11.7	23.4	14.5	25.4	29.2	106.4
대구	2.1	6.6	13.2	14.1	15.9	11.7	63.7
경남	1.0	5.0	12.3	10.2	22.8	9.1	60.4
전북	1.1	5.2	17.5	10.0	11.0	8.0	52.7
광주	1.0	3.7	10.4	9.4	16.2	6.4	47.1
경북	0.3	3.2	12.6	6.6	19.0	4.0	45.7
인천	3.7	2.3	5.3	4.2	12.0	9.3	36.9
전남	0.1	2.1	12.1	5.3	13.0	4.2	36.7
강원	0.4	4.3	5.8	4.4	11.9	3.4	30.2
대전	2.1	3.2	2.2	6.0	8.8	4.2	26.4
울산	0.1	2.9	5.5	5.1	6.6	6.3	26.4
충남	0.3	1.4	3.6	3.5	10.5	3.8	23.1
제주	0.2	1.2	2.2	4.4	4.9	3.0	16.0
충북	0.5	4.3	2.7	0.9	5.4	1.5	15.3
세종	0.0	0.2	0.2	0.2	0.8	0.0	1.5
계	137.9	175.9	251.7	222.0	331.5	218.8	1337.5

10위였다. 문학 부문 지수는 0.1로 매우 낮았다. 반면, 국악과 연극 분야에서 각각 12.1과 13.0로 비교적 높았다. 국악 부문의 수치가 두드러진 이유는 국립남도국악원이라는 인프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총 614건의 예술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양악 공연이 31.8%인 195건, 시각예술과 연극이 각각 25.9%와 25.6%인 159건, 15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악의 비중은 12.1%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다. 순천문화예술회관으로 모두 109건 공연·전시 열려 전남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었다. 다음으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85건, 예술마루 69건, 목포문화예술회관 54건, 국립남도국악원 36건, 광양시문화예술회관 31건, 장성문화예술회관 21건, 장흥문화예술회관 15건, 나주문화예술회관과 강진아트홀이 각각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예술위 관계자는 "전남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예술 활동이 벌어진 순천문화예술회관의 활동 건수는 100건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며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천문화예술회관 정도의 규모로 활동하는 지역내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대체 몇명이야?”...아시아문화원 ‘깜깜이 채용’

새로 출범할 문화부 산하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이 직원 채용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준공공기관임에도 채용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종 합격자 발표시기도 '추후공고'로 발표한 것이 단초가 됐다.

실제 지난달 29일 아시아문화원 설립준비단이 발표한 채용공고안에 따르면 채용 규모는 '000'명이다. 행정직·전문직군 등에 걸쳐 2급부터 5급 직원을 선발하지만 정작 채용인원은 명시하지 못했다.

아시아문화원 설립준비단이 현재 정부 부처와 아시아문화원 인력정원을 놓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채용규모를 밝히지 못한 것이다. 또 문화전당 개관(9월

규모·합격자 발표 시기 미정

최종 면접 앞두고 확정 못해

개발원 인력 대거 탈락 불만

4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직을 구성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문화전당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아시아문화원의 신규 직용 채용에는 3200여명이 몰렸다. 신임을 뽑는 4~5급에는 700여명이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를 거쳐 면접을 기다리고 있고 경력직인 2·3급에는 90여명이 1차시험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연봉이 최저 2400만원~

최고 8300만원까지 비교적 높아 경쟁을 부추긴 요인이 됐다.

그러나, 면접전형을 앞두고도 정확한 채용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깜깜이 채용'이라는 불만 소리가 나오는 것은 물론, 채용규모를 놓고 70명선이나 120명 규모니 하는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채용전형 여파로 아시아문화원의 전신이 될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업무마비 상태다.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들이 다수 아시아문화원에 채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당수 직원들이 전형과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특정 부서의 경우 직원 대부분이

전형에서 탈락했다. 문화개발원 전체적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탈락함에 따라 일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원 안팎에서는 직원들이 대거 탈락함으로써 업무후진은 물론 문화전당 개관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콘텐츠 구축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확대·개편해 출범할 법인이다. 이 법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문화전당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문화전당 콘텐츠 창작과 문화상품 유통 등 수익사업을 추진한다.

실제 특정 부서의 경우 직원 대부분이

亞문화전당 中조각가 왕두 작품 설치 세계적 조각가 왕두(王度)씨가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인근에 작품 '빅토리'(Victory·높이 7m, 폭 2m80cm)를 설치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 'V'를 형상화한 이 작품은 아시아의 행복한 미래와 승리·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조각가 왕두는 지난 1989년 텐안문(天安門) 사태 때 투옥됐고 유럽에서 활동 중인 중국미술 1세대 작가다. /최현배기자 choi@

밝은광주안과 의원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